



미 증시, PPI 대폭 둔화 소식 등으로 1%대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3 일(목) 미국 증시는 델타(-1.1%)의 실적 부진 소식에도, 3 월 생산자물가 둔화(2.7%YoY, 컨센 3.0%), AI 사업 진출에 따른 아마존(+4.7%)의 주가 급등 및 애플(+3.4%), MS(+2.2%) 등 여타 대형 기술주 강세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14%, S&P500 +1.33%, 나스닥 +1.99%). 업종별로는 부동산(-0.4%)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2.3%), 경기소비재(+2.3%), 기술(+2.0%)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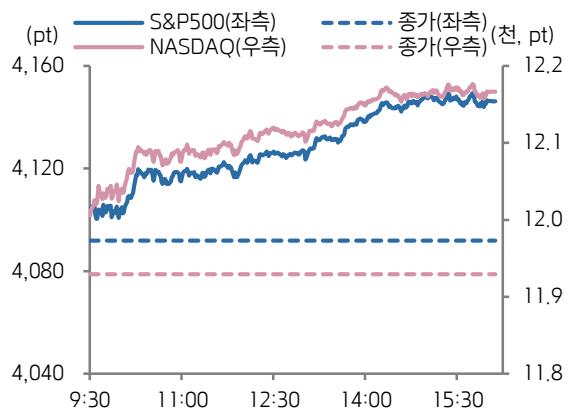
미국의 3 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는 2.7%(YoY)로 전월(4.9%) 및 예상치(3.0%)를 큰 폭 하회하면서, 12 일 소비자물가(5.0%YoY, 전월 6.0%)에 이어 미국의 전반적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 근원 생산자물가도 3.4%(YoY)로 전월(4.8%)에 비해 하락했으며, 예상치(3.4%)에도 부합. 다만, 식료품 및 에너지 및 운송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는 3.6%(YoY)로 전월(4.5%)에 비해 내려왔으나, 예상치(3.1%)는 상회.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3.9만건으로 전주(22.8만건) 및 예상치(23.2만건)을 모두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2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81.0 만건으로 전주(182.3 만건) 및 예상치(181.4 만건)을 모두 하회.

중국의 3 월 수출은 14.8%(YoY)로 전월(-6.8%) 감소세에서 6 개월만에 증가세를 보였으며, 예상치(-7.0%)도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3 월 수입(-1.4%)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전월(-10.2%) 및 예상치(-5.0%)를 모두 상회하는 등 3 월 수출입지표 호조는 이들의 리오프닝 효과가 유효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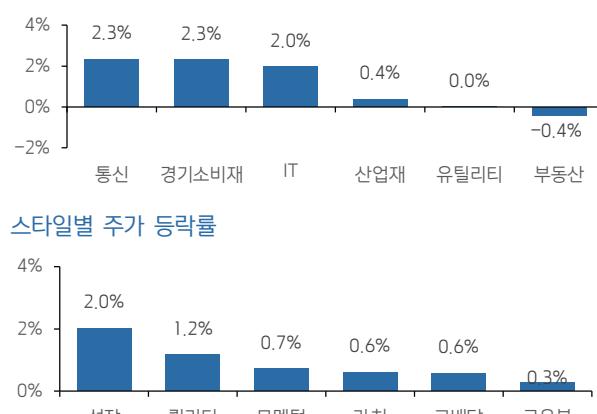
매클럼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연내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임금도 4~5%대의 상승률을 유지할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1.66	+0.43%	USD/KRW	1,310.53	-1.14%
코스피 200	333.09	+0.3%	달러 지수	101.02	-0.48%
코스닥	894.25	+0.41%	EUR/USD	1.10	+0%
코스닥 150	1,361.04	+0.04%	USD/CNH	6.87	+0.01%
S&P500	4,146.22	+1.33%	USD/JPY	132.57	-0.01%
NASDAQ	12,166.27	+1.99%	채권시장		
다우	34,029.69	+1.14%	국고채 3년	3.210	-3.6bp
VIX	17.80	-6.76%	국고채 10년	3.280	+0.8bp
러셀 2000	1,796.68	+1.3%	미국 국채 2년	3.968	+1.1bp
필라. 반도체	3,074.94	+0.73%	미국 국채 10년	3.445	+5.4bp
다우 운송	14,186.55	-0.24%	미국 국채 30년	3.687	+6.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63.24	+0.67%	WTI	82.16	-1.32%
MSCI 전세계 지수	655.04	+1.11%	브렌트유	86.24	-1.25%
MSCI DM 지수	2,829.20	+1.21%	금	2055.3	+1.5%
MSCI EM 지수	997.03	+0.35%	은	25.93	+1.83%
MSCI 한국 ETF	64.01	+2.98%	구리	412.4	+1.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9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9.9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원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스닥 강세 및 인플레 하락으로 국내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지 여부 2. 외환 스와프 체결로 급락한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 3. 2차전지주에서의 수급 이탈 현상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 월 PPI 가 전년동기 대비 2.7%(예상 3.0%, 전월 4.9%)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 특히 전월 대비로 -0.5%(예상 0.1%, 전월 0.0%)로 20 년 4 월 이후 첫 감소전환. 대부분 상품(mom -1.0%, 에너지(mom -6.4%) 가격의 하락이 기여한 비중이 커지 때문에 최근원 PPI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1%(예상 0.3%, 전월 0.2%) 예상보다 더디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점이지만, 실질적인 인플레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이 4 거래일만에 상승전환 하는 등 성장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음.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23.9 만건(예상 23.2 만건, 전주 22.8 만건) 기록하며 지난주 계절조정 이후 판데믹 이전 평균 22 만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연준의 긴축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 외신에 따르면 고용시장 약화로 판단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일반적인 기준은 27 만건. 1) 아직 침체라고 판단하기에는 낮은 수준이고, 2) 임금상승률 둔화, 주거비 하락 등 요인으로 인플레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3) 미국 대형, 소형은행들의 예금, 대출 추이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리스크는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판단.

그러나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남은 변수인 실업률의 상승이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및 경기 경착륙 가능성성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 있음에 유의. 실업자수 상승이라는 변곡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 연준의 긴축 중단 기대감, 제약적인 단기금리 움직임 등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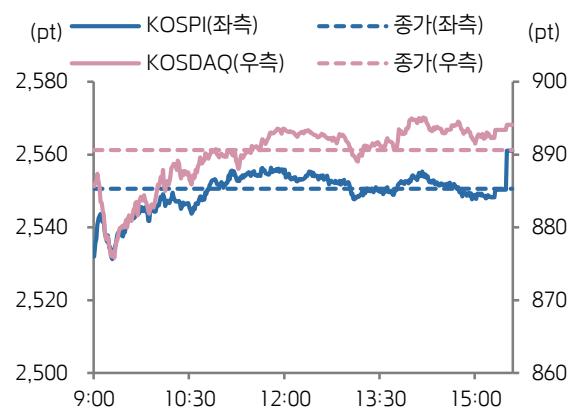
13 일(목) 국내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하며 하락 출발했으나 기관의 순매수,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에 급락한 원/달러 환율, 중국 수출입 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KOSPI +0.43%, KOSDAQ +0.41%).

금일에도 인플레 하락 확인으로 하방경직성이 확보된 가운데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 강세 전환 영향, 옵션만기일 리밸런싱 이후 수급 유입 등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중국 3 월 수출은 YOY 14.8%(예상 -7.1%, 1~2 월 누적 -6.8%), 수입 YoY%-1.4%(예상 -6.4%, 1~2 월 -10.2%) 기록하며 올해 첫 플러스 전환. 미국 외 유로존, 인도, 동남아 향 수출이 급증하고, 수입 감소폭 축소 및 원유, 석탄, 자동차, 기계 등 소재, 산업재의 수입증가로 재고조정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하는 등 세부내용도 나쁘지 않았음. 하반기 미국 경기침체 가시화된 가운데, 1~2 월 지표 부진으로 주춤했던 중국 경기회복 모멘텀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결과. 2 월달 중국 실물지표 부진으로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BDI 운임 및 유로존 경기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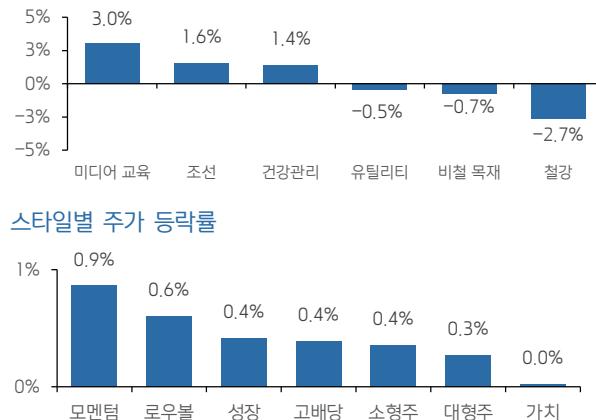
한편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옵션만기일을 맞아 비중조절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로 전일에 이어 급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이차전지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별 호재가 있는 여타 업종들로의 수급 분산 역시 나타나고 있음. 맥크로상으로는 성장주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엔터, 제약바이오 업종 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KOSPI & KOSDAO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서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성격이나 양상 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중증, 매매의 구조와 방법 등에 관해 의사결정을 전략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행동에 이루어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련의 투자행동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거나 법적 책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판권, 전송, 전자, 편집, 번역, 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